

■ 특별기고<10>



이 시대에

‘선비와 선비정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국 복송의 신법당 왕안석은 충신·간신인가?

權仁浩(철학박사, 대전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양철학)

그렇다면 요 근래 약 20년간의 이른바 ‘국민·참여정부와 이명박근혜 정부 및 촛불·탄핵·대선정국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지방·국회의원 보궐 선거 정국’ 등은 비록 후세 역사의 재평가 가 있겠지만, 현재 시각에서 그 성공·실패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제각각이다. 또한 정치체제와 국정철학 및 그 윤리·도덕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실학적인 ‘정덕(正德)과 이용후생(利用厚生)’ ‘서경’이 한 가지로 이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도, 오늘날 개인과 사회의 윤리·도덕과 국가·세계의 정의·평화통일 등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근래 수십 년간 ‘인문학의 쇠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고하였지만, 철학과 역사학 등이 대학에서 서서히 실종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이다. 기기제도(器械制度)와 정법(政法)은 바람직한 현실에서 이미 유리(遊離)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남송의 주자학은 허형(許衡, 1200~1281) 등에 의해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忽必烈, 1215~1294, 재위:1260~1294)의 한화정책(漢化政策)에 힘입어 인종 황경(皇慶) 2년(1313) 관학화(官學化) 되었다. 육구연(陸九淵, 1139~1193)의象山학(象山學)이 오징(吳澄, 1249~1333) 등에 의해 주자학과 겹쳐서 유행했다는 설도 없지 않지만, 원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철저한 인종차별적인 사회계층체제의 유지와 통치에는 주자학이 가지는 상층귀족의 보위적 성격을 지닌 ‘정분론(定分論)’이 그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의 지배하의 고려에서 원의 앞잡이 세력들과 고려 중기 이후 무신(武臣)난으로 시작된 지방 향리(鄉吏) 층에서 신흥사대부로 성장한 세력들의 합리적 자기 방어와 새로운 질서의 이론적 무장의 필요에 의하여 주자성리학이 도입 연구 발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것은 다시 말하여 정주(程朱) 성리학이 가지는 한족(漢族) 우월주의 내지는 화이론(華夷論)과 정통론 혹은 의리론 등으로 북방의 반수렵(半狩獵)·반농(半農);(금), 반유목(半遊牧)·반농; (요, 서하, 서하, 몽고 등)에 대해 문화적 우월주의 성격의 또 다른 양상을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 말에 원나라의 쇠퇴와 중원(中原) : 황하 유역 일대)과 남쪽 장강(長江) : 양자강 유역) 지역 등에서 굴기(屈起)한 한족세력들이 등장하자, 원나라에 대한 자주주의가 국제정치 속에서 고려는 친원파와 친명파라는 파벌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치 1945년 광복과 1948년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파와 친산문제 및 다시 친미·친소로 남북한과 38도(N)분단과정에서의 갈등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고려의 요동정벌 정책과 이

세계의 ‘위화도 회군’ 그리고 이른바 ‘사직지신(社稷之臣)’의 절의와 역성혁명과 참여 등으로 주자학 스스로의 다양한 장점과 모순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조선조가 가지는 주자 성리학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정비에 부족한 면과 아울러 이윤배반적 정치사상과 학문성격의 원초적 천형(天刑)이었다고도 보여진다.

주희(朱熹, 1130~1200)의 남송 효종(孝宗) 순희(淳熙) 16년(1188) 11월에 올린 ‘무신봉사(戊申封事) : 1만여 자’ 및 선조(宣祖) 원년(1568)에 임금의 구언(求言)에 의해 당시 조야(朝野)의 각각 대표라 할 수 있는 퇴계(退溪)와 남명(南冥) 두 선생이 상소문을 올렸다. 주희와 이황(李滉, 1501~1570)의 ‘무진유조소(戊辰六條疏) : 8천여 자’가 조식(曹植, 1501~1572)의 ‘무진봉사(戊辰封事) : 1,600여 자’보다도 월등하게 분량이 많았고, 특히 성현들의 이야기와 경전 등의 인용문이 많으며, 이단과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포괄이 많은데, 이는 이황의 상소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조식의 상소문에서 짐작한대로 “아래로 사람의 일을 배우고 위로 하늘의 이치에 통하는 것이 또 학문에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은 곧 입에 발린 이치이며, 자신에게서 돌이켜 보지 않고 들어서 아는 것만 많은 것은 곧 귀에 발린 학문입니다.”라고 한, 즉 가까운 인사에서 천리를 배우고 구이학(口耳之學)을 지양(止揚)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황의 평가대로 ‘왕실에 대한 언어가 불공하여 거만스럽고, 세상을 굽어내리다 보며 가볍게 여겨 고향(高尙)의 선비로 “불사왕후(不仕王侯) 고상기사(高尚其事)” (“주역”[산풍고괘], 上九 爻辭)적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혹은 이황이 온건 착실한 성품이라 저술이 많고 언설과 분석적 태도에서 상소문이 마치 꼼꼼하게 각주를 달면서 쓰는 논문이라면, 조식은 ‘주자이후(朱子以後) 불필저서(不必著書)’라고 하는 이야기기는 일찍이 명나라 초기에 설선(薛瑄, 1392~1464)이 한 말로서 그렇기 때문에 ‘실천궁행(實踐躬行)’ 할 뿐이라고 하였다. 같은 시기에 오여필(吳與弼, 1391~1469)이 일생을 처사로 지내며 ‘자득실천과 수양공부’를 첫째로 하였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조식에게 영향을 주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태도에서 언설(言說)보다는 의리실천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자신에게 체화용해(體化溶解)된 필요한 문자만을 함축적으로 특별한 인용 없이 쓰는 대가(大家)의 논문이나 성명서 같은 인상을 받는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과 명나라는 어떻게 다를까?

중국 산동성에 있는 권현인비 묘역에 대한 참배를 계기로 권현인비 당시의 명나라와 조선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중국과 한국을 이해하는 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역사적 경험의 지층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주원장에 의해 1368년에 건국되고 조선은 1392년에 개창하였다. 두 나라 건국년도가 약 20여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유교를 국가체제 정치는 범위에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원장은 1394년 한림학사 유삼오(劉三吾)로 하여금 맹자절문(孟子節文)을 만들 것을 지시한다.

“고황제가 맹자를 살펴보시다가 ‘군주가 신하를 지푸라기처럼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라고 말한 구절에 이르러서 그 개연히 탄식하며 말했다. 만고의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의리를 드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유신(儒臣) 유삼오 등은 명을 받들어 맹자의 문구 가운데 순일하지 않은 것을 신삭하였다.”

(錢曾, 『讀書敏求記』, 叢書集成初編本, 中華書局, 1985)

주원장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황제 주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하는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이지 어떻게 신하가 황제를 원수처럼 여길 수 있다는 말인가. 주원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황제의 심기를 거슬리는 구절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명한다. 총 80조목이 여기에 해당된다.(이와 관련된 맹자 89 조목은 안동권씨 대중회 홈페이지 www.andongkwon.org 참조) 과거 시험에도 이 89조목은 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설에 의하면 주원장이 군주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맹자」를 쓴 맹자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놈을 잡아다 불기를 전 것이라고 화를 냈다는 얘기도 전한다.

주원장이 삭제한 구절은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정치에 핵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주원장의 이러한 조치는 명나라에서 왕도정치 사상을 탈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신하들은 황제에게 감히 왕도가 어찌구 저찌구 말할 수 없다. 타락한 군주와 관료에게 저항할 수도 없다. 꺾소리 말고 시킨 대로 하라는 말없는 명령이다. 사상통제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맹자

절문’은 출간되었고 황제권은 강화된다. 전제군주체제 내지는 황제독재체제의 구축이다. 황제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환관을 확대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신권은 약화된다. 승상 제도도 폐지해 버린다. 수많은 유학자를 숙청해 버린다. 언론을 차단하니 언론의 역할도 축소된다. 신하와 국가경영을 논의하는 경연제도도 쇠퇴한다. 명나라의 정치문화는 맹자의 왕도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은 정도전의 설계에 의해서 구축된다. 정도전은 주원장과는 달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를 하루 한 장 내지는 반장을 읽으며 왕도정치사상과 민본사상을 철저히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혁명에 성공하고 왕도정치사상을 토대로 조선의 각종 제도를 구축한다. 동궁에서 세자에게 맹자를 강의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맹자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하들은 이러한 조치는 명나라에서 왕도정치 사상을 탈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신하들은 황제에게 감히 왕도가 어찌구 저찌구 말할 수 없다. 타락한 군주와 관료에게 저항할 수도 없다. 꺾소리 말고 시킨 대로 하라는 말없는 명령이다. 사상통제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맹자

소문에서 “자전해서 생각이 깊으니까는 하나 깊숙한 궁궐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선왕의 한 외로운 어린 아드님이실 뿐이니 천 가지 만 가지의 천재(天災)와 역만 갈래의 민심을 어떻게 감당해 내며 수습하시겠습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려도 목이 날아가기는커녕 멀쩡하게 살아 있을 수 있었다. 국가권력이 사대부의 정신과 사상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의 정치문화도 이와 유사하다. 중국은 베이징대학교를 들어가려할 때도 신분증과 짐을 검사한다. 천안문 광장에서도 지하철을 탈 때도 신분증과 소지품을 검사한다. 중국에서는 검열과 검사가 일상화되어 있다. 거리의 도처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인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감시하고 통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흔히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단시간 내에 G2의 반열에 올랐고 앞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들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물리적인 힘을 비축하는 것만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힘이 썩 강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대국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현인비

명나라는 주원장이 1368년에 건국했다. 주원장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호구지책으로 절에 들어가 탁발승 노릇을 하다 흥건적 부대의 지휘관으로 권력의 기반을 닦은 후 명나라를 건국한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중국 역사상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나며 평민이 황제가 된 몇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한 후 ‘조선’과 이성계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화령’을 명나라에 보내 나라 이름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국제적으로 천자국과 제후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할까. 이후에도 명나라는 조선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 심했다.

특히 1399년 반란을 일으켜 조카 건문제(建文帝)를 몰아내고 1403년 명나라 제3대 황제로 즉위한 영락제는 1408년 환관 황엄을 조선에 보내 조선 처녀를 바치기를 요구한다. 조선에 당도한 황엄은 칙서를 들이대며 지난번에 “보낸 말 3천 필은 이미 도착하였다.”고 치하한다. 이에 태종 이방원은 “사신 앞에 나아가서 뽐어 앉는다.” 황엄은 영락제가 “잘 생긴 여자가 있으면 몇 명을 간택해 데리고 오라”는 칙서를 낭독한다. 태종 이방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16일) 라고 명을 받든다. 명

이 떨어지자마자 태종은 바로 공녀(貢女) 선발을 담당할 진현색(進獻色)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나라에 금혼령을 내린다. 양가(良家)의 처녀 13세 이상 25세 이하는 혼인할 수 없는 조처였다.

또 경차관을 각 도에 보내 처녀를 뽑게 한다. 태종은 5월 11일 정비(靜妃)와 함께 내전에서 서울에서 선발된 73명의 처녀들을 친히 본다. 5월 19일에도 친히 처녀들을 뽑는다. 6월 3일에는 의정부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서 선발된 30여명 중에서 7명의 처녀를 가려 뽑는다. 그 다음에는 황엄과 함께 경북공에서 처녀를 뽑는데 “황엄이 처녀 중에 미색이 없다고 노하여 경상도 경차 내관 박유를 잡아 결박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말하기를 ‘경상도가 나라의 반이나 되는 것을 상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찌 미색이 없겠느냐? 내가 감히 사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여자를 뽑아 올린 것이지?’ 하며 곤장을 치려다 그만두고 정승을 앞에 세워 놓고 목을 보인다.” 그러자 임금이 황희를 보내 “이 계집아이들이 멀리 부모 곁을 떠날 것을 근심하여 먹어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해 날로 수척해졌기 때문.”이라고 핑계 대며 사건을 무마한다.

이날 선발 과정에서 처녀들은 명나라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갖은 피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처녀는 중풍이 걸린 것처럼 입을 삔뜯고, 또 어떤 규수는 중풍 걸린 환자처럼 머리

를 흔들며 대고, 전 군자감 이윤로 딸은 병신처럼 다리를 절뚝거렸다고 한다. 이러니 황엄이 노발대발했던 모양이다.

조선 조정은 다시 각도에 순찰사를 보내 처녀를 선발하고 만약 여자를 숨기거나 머리를 자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를 써서 피하려 하는 왕명을 따르지 않는 죄로 직첩을 회수하고 가산을 몰수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런 난리를 겪고 나서도 황엄이 두 번째로 처녀를 선발할 때는 본인이 직접 의방에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팔도에서 뽑힌 처녀를 태종이 직접 본 것은 2번, 의정부 단독으로 1번, 황엄과 함께 13차례 총 16번에 걸쳐 경북공에서 명나라로 데려갈 처녀를 선발한 후 최종 5명을 간택했다.

한명은 한양에 살고 있는 나이 18세로 가산대부 공조전서 권집중의 딸이었다. 또 한명은 한양에 살고 있으며 나이 17세로 통령대부 임첨년의 딸이었다. 또 다른 한명은 통덕랑 이문명의 딸로 나이 17세였다. 네 번째로 뽑힌 처녀는 선략장군 총좌 시위사 중령 호군(宣略將軍 忠佐 侍衛司 中領護軍)에 귀족의 딸로 나이 16세였다. 마지막으로 뽑힌 처녀는 나이 14세로 중군부사정(中軍副司正) 최득비의 딸이었다. 그 해 10월 11일이었다.

간택된 처녀 다섯 사람은 11월 12일 황엄을 따라 낯설고 물설은 이역만리 명나라로 끌려갔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 하고 떠나는 길에 부모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창군(吉昌君) 권근(權近)은 그들을 위하여 시(詩)를 지

어 이르기를 “구중(九重) 궁궐에서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생각하여 만리 밖에서 미인(美人)을 뽑는다. 적봉(霍荊, 핑퐁로 수레에 단 것)은 멀리 행하고 계삼(纓峯,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은 점점 아득하여진다. 부모(父母)를 하직하니 말이 끝나는 어렵고, 눈물을 참자니 씻으면 도로 떨어진다. 슬프고 섭섭하게 서로 떠나는 곳에 여러 산(山)들이 끊어져 들어와 푸르다.” 하였다. 이보다 먼저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권근이 또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해설(解說)하였다.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구하여야 하고, 해가 저물면 계집아이를 구한다. 나비도 오리라 눈이 있어 아직 꽃피지 않은 가지를 와서 택한다.”

다음해 2월 9일에 황제는 권씨를 현인비(顯仁妃)에 봉하고 오라비 권영군을 광목시경(光祿寺卿)에 제수한다.

황엄은 5월 3일 다시 조선에 와서 처녀 한두 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조선은 사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진현색을 설치하고 처녀들의 혼인을 금지한다. 61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강한 나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한 나라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서울산악회 정구산행 안내 (제286차)

- ◆ 일 시 : 2018년 8월 19일 오전 10시(매주 3주째 일요일)
- ◆ 등 산 지 : 송추계곡
- ◆ 집결장소 :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 8번 출구, 34번 종점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 준 비 물 : 도시락 지참바랍니다.

회 장(권중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병길): 010-5359-8188

2018년 8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중훈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 · 건강 ·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8년 8월 12일(일) 오후 7시
-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5번 출구 · 지하철 6호선 공덕역 6번 출구 → 공덕오거리 → 르네상스타워(옆) → 우가촌
-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8년 8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